
변화하는 쿠바 사회

김희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스페인 식민 시기 쿠바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였음은 차치하고라도 20세기 중반 이후 쿠바는 아메리카의 국제 정세에서 매우 주요한 국가였다. 특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세계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위치하였던 쿠바에 대한 관심은 미국 및 구소련과의 관계, 카스트로 대통령이 이끄는 쿠바의 정치 상황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이후 쿠바의 정치적 위상에는 다소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소련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이 감소함으로써 쿠바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쿠바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사였으나 쿠바인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혁명 정부가 약속한 사회 보장제도의 축소, 대통령의 교체로 인한 정치적 변화, 지속적인 인구 해외 유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부세계와의 교류 증진 등 극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쿠바인의 일상, 가치관, 절망 혹은 희망, 혁명에의 기대 등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1년 NACLA 미주보고서(Report on the Americas)를 바탕으로 최근 쿠바 사회와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증가하는 빈부 격차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쿠바는 미국의 뒷마당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의 경제적·정치적 특혜를 받았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 그러한 수혜는 중지되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대(對)쿠바 금수조치로 인해 쿠바의 경제적·정치적 상황 및 위상은 큰 변화를 겪었다. 쿠바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련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 '특별한 기간(Special Period)'라고 일컫는다.

특별한 기간 동안 쿠바는 그간 금지하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쿠바의 경제상황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상품 생산과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 수입 현황도 국가가 최소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쿠바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주력산업이던 설탕산업 또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은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니켈생산업, 관광산업, 보건 관련 산업, 생명공학 등만이 다소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쿠바 정부는 고용인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불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이 지하경제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러한 쿠바 상황의 원인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소련의 해체는 예견할 수 없는 돌발적인 것이었으며, 미국의 금수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이은 허리케인이 농작물과 주택에 피해를 입혔고, 니켈의 국제 거래가가 요동쳤으며, 잘못된 국가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경제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이다.

1959년부터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쿠바 경제는 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가가 시민에게 일자리, 식량, 보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주었다. 쿠바의 평등 정책은 국가가 공공 지출의 형태로 서비스 및 재화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과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쿠바 사회는 부의 분배가 매우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도 매우 적어서, 국영부문 노동자의 최고 임금은 최저 임금의 4배 반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쿠바 노동자의 95% 정도에 적용되었다. 1984년 쿠바의 빈곤율은 6.3% 정도로, 제한된 자원으로 생활하는 사회치고는 매우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 경제적 어려움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분배 능력은 감소하였고, 이는 사회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였고, 도시 빈민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렀다. 1980년대까지 0.24로 매우 낮았던 쿠바의 지니계수는 2000년경 0.38까지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쿠바 정부는 2010년 10월 '쿠바 경제 및 사회 정책의 가이드라인' 3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97

년 쿠바 공산당 1차 전당대회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1960년대 실시되었던 쿠바 개혁만큼이나 쿠바 사회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 개혁의 핵심은 쿠바 정부가 고용한 상당한 인원(2015년까지 180만 명)을 해고하고 대신 민간부문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국영부문에 속하였던 200여 종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이관되었으며, 민간 소기업 허가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이외의 구성원을 기업체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는 국영부문에서 해고된 상당수의 인력을 민간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경제의 상당 부분이 민영화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민영화된 분야의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며, 민영화로 인한 수혜층이 있는 반면 비수혜층이 존재하게 된다. 나아가 쿠바 정부가 기업 운영 즉, 시장경제의 운용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국가의 역할, 즉 시장경제 운용을 위한 신용부문의 형성, 세제의 적절한 운용, 유통 구조의 형성 등을 쿠바 정부가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고급 인력을 키워내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여 다수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영에서 민간으로 이행된 직종의 대부분이 저기술 업종이다. 즉, 민간에게 개방된 업종 중 180여 가지가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주로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부문의 직업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 조치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고용 가능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혁명 이후 1990년대까지 쿠바 사회가 축적해온 혁명의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보존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쿠바 사회의 빈부 격차의 증대는 이러한 쿠바 혁명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영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한 가족의 기초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영부문에서 민영부문으로 전환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나 개혁 이후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로 전환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로 인해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국영기업 근로자들은 다수가 행상 등 소규모의 자영업을 통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쿠바 사회의 생필품 수급 문제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밀수도 감행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쿠바인이 입국할 경우 비자가 필요치 않은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여 쿠바에서 되파는 생필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상인'이라 부르는 이 밀수업자들은 구입가의 서너 배 이상의 이윤을 얻고 있어 적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쿠바의 이중 통화제도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1993년 개방 이후 미국 달러와 교환 가능한 태환페소(CUC)와 교환이 불가능한 쿠바페소(CUP)의 이중 통화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태환페소와 쿠바페소의 환율은 24대 1에 이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태환페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즉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외국인 소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돈을 보내오는 사람 등은 의류로부터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임금이나 연금은 쿠바페소로만 지급되

며 오로지 쿠바폐소에만 의존하는 인구가 쿠바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쿠바폐소만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환차로 인하여 태환폐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구매력 격차가 있으며, 나아가 이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III. 동요하는 청년 세대

전기한 바와 같이 국영부문의 대규모 해고와 부족한 배급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쿠바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특별한 기간, 즉 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적 빈곤과 외국자본의 개방 등을 겪은 세대이다. 특히 물질적 궁핍 속에서 성장한 쿠바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혁명의 유토피아에 대해 뿌리 깊은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공산당원이나 노인 세대는 혁명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급격한 변화와 정치적 혼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 정권의 정교하고 광범위한 치안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사회화된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혁명에 대한 불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쿠바 사회의 모순을 직접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던 가족 일원이 더 나은 돈을 벌기 위해 달리기 유통되는 관광산업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 도덕적 이중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 쿠바를 영원히 떠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바가 오랜 기간 선전해왔던 혁명적 가치, 즉, 전 국민의 교육기회, 애국심, 정치 참여, 사회적 책임감, 복지 등과 같은 것은 대부분의 쿠바 젊은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을 갖고도 생활비조차도 벌지 못하는 쿠바의 기성세대를 보며 쿠바 젊은이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쿠바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쿠바 사회에 만연하는 부정부패와 범죄 또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쿠바인들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부정부패 및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을 어기는 것은 쿠바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으며 쿠바 사회 곳곳에서 속임수, 도둑질, 뇌물, 거짓말, 생략 등이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문화적인 면에서 쿠바의 젊은 세대는 힙합, 히피 문화, 라스타파리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다. 쿠바의 현실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는 쿠바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원하는 바를 이러한 문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모순이 주를 이룬다.

IV.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변화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된 쿠바 경제의 어려움은 쿠바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생, 미래, 국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꾸어놓았다. 경제위기 이전 대부분의 쿠바인은 정부에 의지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체제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악화, 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가, 억압적인 국가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정부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뉴스, 정보, 지식 등을 추구하는 것은 쿠바인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의사나 기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미국이 지원하는 라디오방송을 듣거나 관광객에게서 소식을 듣고, 종교 관련 서적을 읽는다. 최근에는 비밀리에 케이블티브이 안테나나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를 빌리는 일이 더욱 일반화되었다. 케이블티브이에서는 멕시코나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이는 불법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쿠바인은 목전의 현실과 완전히 다른, 외부 세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또한 변하고 있다. 1959년 혁명 이후 쿠바는 정부와 정당의 융합, 국가에 의한 사회의 통제, 사회의 자체 조직력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등의 특징을 지녔다. 쿠바 사회는 국가의 정체성과 시각에 관한 문제에서 만장일치를 표방한 반면, 성이나 인종에 근거한 배제는 거부하였다. 그러나 1959년 이후, 혁명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동성애자, 종교 집단, 일부 예술가의 활동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동성애자의 지위는 발전과 후퇴를 거듭해왔다. 쿠바 정부는 1988년 형법에서 동성애자의 위법성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후 동성애를 주제로 한 문화 및 보건 영역에서 정부의 후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쿠바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며, 성적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역, 직장, 가족 내에서는 여러 형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0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처형을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에서 ‘성적 취향에 기인한 살해’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러한 결의를 둘러싼 논의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쿠바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쿠바 대표부는 이 조항에 대하

여 동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성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쿠바의 비판적인 블로거들은 쿠바 정부가 정치적 동맹을 위하여 동성애자의 권리를 희생하였다고 맹비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쿠바 정부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들춰내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의 딸이자 성교육센터의 의장인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쿠바 동성애자의 지위 향상에 반하는 것임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밝히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연구를 위한 쿠바 다문화사회의 성분과 의장인 알베르토 로케는 쿠바 정부가 동성애를 죄목으로 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성정체성이야말로 각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인권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쿠바 대표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성적 평등의 제도화가 아직도 어려운 여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쿠바 대표부에 대한 쿠바 사회의 비판은 쿠바의 동성애운동에 대한 관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쿠바 혁명에 반대하던 사람은 1960년대 국외로 추방되거나 패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쿠바인은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대해 수동적이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으며 무관심하지도 않다. 오히려 고도로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쿠바인 나름의 대처 방안이 발달하였다.

쿠바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 주권의 수호자, 발전의 지지자, 사회정의의 보증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통치의 맨 위에 국가와 공산당이 위치하고 있는 수직적인 중앙집권을 통해서 쿠바인의 사회 참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쿠바 언론은 쿠바 정권이 “참여 민주주의”라고 끊임없이 선전하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나마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가 중심적인 제도를 각인시킴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시민의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7년 이후 정부는 행정기관들의 운용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입 관리들로 하여금 여타 관리들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료주의를 다소나마 감소시켰다. 그러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 이에 비해 현재 다수의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적 관행이 시도되고 있다.

쿠바의 대표적 참여 제도인 인민회의는 지역적 단위로써 사람들을 근린과 동네 수준에서 모으고 지역 참여의 채널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인민회의의 역량은 한정적이다. 1990년대 쿠바 정부는 인민회의의 확대를 약속했으나 인민회의의 재원은 줄어들었고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체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다. 대중 경제의 취약성, 도시 기반 제조업체의 부재로 인해 농업 생산 이외의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현실, 지역 및 국가 연합의 부재, 지역 단위의 법안과 정책 부재 등으로 인해 인민회의의 시민 참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쿠바의 시민 참여 문제는 “참여의 바다에 있지만 그 깊이가 겨우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최근 쿠바에서도 극한 제도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치적이고 참여적인 리더십을 지향하는 대안적인 사회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자치와 소

통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실험과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료주의와 상업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환경운동 단체와 평화 단체, 예술가 집단, 커뮤니티 중재 포럼, 작업장 등 많은 단체가 속한다. 최근 쿠바에서는 친혁명적 성격을 지니지만 관료주의에는 반대하는 그룹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주의에 반대하고, 자기관리와 참여적인 리더십을 지향한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이후 종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쿠바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 아프리카계 쿠바인의 모임과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쿠바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더 이상 국민에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종교 기관이 영혼의 피난처, 사회적 결속체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 오락, 물자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련의 새로운 시민 조직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정부와 국제기구, 다양한 민중 조직 간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조직 중에는 성의 다양성, 환경 문제, 민중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지닌 조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지역 단위의 운동 또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정부는 새로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쿠바의 NGO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친마르크스주의 그룹인 파이데이아(Paideia, 1990년 폐쇄,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폐쇄 연도), 여성 단체인 마힌(Magin, 1996), 좌익 학생 단체인 체비베(Che Vivé, 1997), 해비타트쿠바(Hábitat-Cuba, 1998) 등이 문을 닫았으며, 환경운동 단체인 시바리마르(Sibarimar, 2005)의 폐쇄는 자치적인 사회운동에 대한 쿠바 정부의 근원적이고도 본능적인 거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관리의 억압과 제재를 받았다.

쿠바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 쿠바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쿠바 인구의 오직 14% 정도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쿠바 네티즌들은 매우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아직은 쿠바인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고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의존성과 온정주의를 거부하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 Bayard de Volo, L.(2011), “Heroines With Friends in High Places: Cuba’s Damas de Blanco”,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5), 19-22.
- Chaguaceda, A.(2011), “The Promise Besieged: Participation and Autonomy in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20-25.
- De la Fuente, A.(2011), “Race and Income Inequality in Contemporary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30-33.
- Espina Prieto, M.(2011), “Changes in the Economic Model and Social Policies in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13-15.
- Hansing, J.,(2011) “Changes From Below: New Dynamics, Spaces, and Attitudes in Cuban Society”,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16-19.
- Hershberg, E.(2011), “Introduction: Salvaging a Revolution?”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8-12.
- Jiménez, M.(2011), “Cuba’s Pharmaceutical Advantage”,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26-29.
- LeoGrande, W.(2010), “Making-Up Is Hard to Do: Obama’s ‘New Approach’ to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38-41.
- Lopez-Levy, A.(2011), “ ‘Chaos and Instability’: Human Rights and U.S. Policy Goals in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5), 16-18.
- Stout, N.(2011), “The Rise of Gay Tolerance in Cuba: The Case of the UN Vote”,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34-37.